

검찰 '순고 전성시대' 열렸다

송규중 공안기획관 등 7명 대검 발령 '간부급 최다'

순천고 출신 검사들이 지난 13일 발표된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대검찰청에 6명이 배치되는 등 약진했다. '순고(순천고) 전성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대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되는 순천고 출신은 송규중(49·사법연수원 26기) 공안기획관과 신성식(53·27기) 특별감찰단장, 김홍(48·29기) 미래기획·형사정책담당장, 김종근(45·29기) 검찰1과장, 김중오(49·30기) 수사정보1담당관, 전주철(46·31기) 검찰연구관 6명이다. 지난 2016년부터 근무 중인 박혁수(44·32기) 검찰연구관을 포함하면 모두 합쳐 7명이다. 대검 간부 중 순천고 출신

이 가장 많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들 가운데 김홍 단장, 김종근 과장, 김중오 담당관은 대검 근무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에도 박찬호(52·26기) 2차장과 이정훈(48·29기) 공판1부장 등 순천고 출신 2명이 근무하게 됐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도 순천고 출신 신자용(46·28기)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임명됐다. 검찰 측은 순천고 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순천고는 전남 지역 최고의 명문 고교로 꼽히고 있다. 평준화 도입 전인 2004년까지 전남 전역의 수재들이 순천고에 입

학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법조인 배출 순위 역시 또다른 호남 명문인 광주제일고와 전주고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평준화 도입 시기도 이들 두 학교보다 늦어 명문고로서의 명맥을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했다.

순천고 출신의 약진은 '지역 명문'과 '정부 기초'가 합쳐진 결과라는 평가다. 문재인정부 들어 호남 출신들이 법무부장·차관, 검찰총장으로 기용됐다. 문 대통령의 '주류 교체론'이 검찰에도 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 검찰 인사는 "서울중앙지검·대검·법무부를 거친 순천고 출신 부장급 인사들이 다음 인사 때도 오직에 배치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법관서 여수 시·군 판사로

순천 출신 박보영 전 대법관 지원 ... '시니어 법관' 사례 기대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사진) 전 대법관이 소송액 2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한 첫 사례다.

17일 법조계와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군법원 판사로 일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군법원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법조 경력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 상당수가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 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고,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판사임용은 통상 법원이 미리 정한 임용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임용신청을 받아서 진행된다. 물론 특별 임용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임용 의사를 밝힌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임용이 확정된다.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임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는 고위법관들이 시·군법원 판사에 임용되면 전관예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 전 대법관이 법관의 70% 급여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미국식 시니어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관예우를 혁파할 수 있고, 국민에게 신속하게 고품질의 재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임에 최영애(67·사진) 서울시인권위원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부산 출신의 최 내정자는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경찰청 경찰1개 혁위원을 지냈고, 현재 수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으로도 재직 중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임동욱 기자 tuim@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소환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가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 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군참모총장에 심승섭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 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심승섭(해사 39기·사진)을 내정하고 17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군산 출신인 심 내정자는 해군 1함대사령관과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작전 전문가로 꼽힌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군사 전문성과 해상작전 지휘능력을 갖췄으며,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식견과 군심(軍心)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국방개혁을 선도할 해군총장 적임자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공천 개입 1심 선고 20일 TV 생중계

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기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열리는 선고공

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인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생중계를 결정

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사라는 사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번 선고공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황영 하가 신청 이후인 16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비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전남, 농산물 소득 1위는 느타리버섯

지난해 10a당 2855만원... 대파, 노동생산성 1위

지난해 전남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은 느타리버섯으로 조사됐다. 일정시간 투입된 노동량과 생산량의 비율인 노동생산성은 대파가 가장 좋았다.

이는 17일 전남농업기술원이 발표한 '2017년산 농산물 소득 조사'에 따른 결과다. 전남지역 하계작물 중 32개 작목 468농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농장경영 진단 및 설계, 경영개선 연구·지도, 농업정책 의사 결정, 영농 손실보상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느타리버섯 등 15개 작목의 소득은 높았고, 쪽파 등 17개 작목은 소득이 줄었다. 특히 느타리버섯·단호박·수국·사과·가을감자·구기자·연초 등 7개 작목은 소득이 30% 이상 크게 증가했다. 반면, 쪽파·노지시금치·시설장미·녹차·가을무·매실·복숭아·영봉 등 12개 작목은 2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작목별 소득순위 1위는 느타리버섯이 차지했다. 느타리버섯은 10a당 2855만원의 소득을 올려, 전년도(1260만원)보다 무려 126.6% 증가했다. 이어 수국(1321만원), 양봉(971만원), 노지단호박(528만원), 구기자(520만원), 무화과(455만원), 사과

(420만원), 블루베리(404만원), 노지포도(372만원), 참다래(327만원) 등이 소득 상위 랭킹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사과는 전년도 19~4위로 12계단, 노지단호박은 15~4위로 11계단 경종 뛰어 올랐다. 2016년도 소득 1위였던 양봉은 전년도보다 31.4% 감소하며, 3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에서는 대파가 가장 좋았다. 대파는 시간당 6만2114원의 생산성을 보였다. 가을배추(5만1516원), 가을감자(4만786원), 녹차(3만8286원), 양봉(3만5816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한 조사에서는 소득이 높았던 느타리버섯이 10a당 3233만원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일이 많아 고되지만 부가가치는 특별히 높지는 분석이다. 2위는 수국(1492만원), 3위는 양봉(1042만원)이 뒤를 이었다.

소득 변동 요인을 보면 느타리버섯(126.6%), 단호박(116.7%), 수국(87.5%), 가을감자(78.1%) 등은 작황 호조에 가격까지 안정되면서 소득이 크게 늘었다. 유자(25.9%), 참다래(13.8%)는 작황은 부진했으나 가격이 크게 뛰면서 소득이 증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임야·삽니다

당일매입가능, 김태산. 010-9374-8585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사주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주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 사주역학 학당 개설 -

- 일시: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6시
- 장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사주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학당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주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

프린터 벤처기업 (주) 소ريان 보청기

당사는 보청기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술보증기금 선정 프린터 벤처기업입니다. 사세 확장에 따른 광주-전남지사에서 근무할 열정을 가진 새로운 인재를 모집 합니다.

모집분야	직영지사 지사장(0명) 및 영업관리 담당자(0명)
근무지역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
담당업무	청각장애등급 절차 및 보조금 관련 안내 업무의 지사 조직관리
채용조건	영업관리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직영지사 지사장(정규직)으로 채용
우대사항	영업조직 관리 경험자 우대
지원서 접수	2018년 7월 16일(월)~ 7월 30일(월)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주)소ريان 관리부 채용담당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jspark@sorian.co.kr 053-252-8585

SORIAN (주)소ريان 관리부